

“경제 활력위한 투자 확대… 신뢰·정직 기본, 고객 최우선”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4대 금융그룹 CEO 핵심 키워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KB 양종희 “신뢰는 실력에서 나와”
신한 진옥동 “혁신기업과 동반성장”
하나 함영주 “변화 제대로 측정해야”
우리 임종룡 “기업 성장 폭넓게 지원”

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머니무브(Money Move)로 흔들리는 우리의 이익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는 자문과 상담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 부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93조~98조원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향후 그룹의 성장은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들의 동반 성장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84조원, 우리금융은 72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날의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며 “머니무브와 함께 자산관리 역량 확보와 생산적 금융 충진을 위한 I 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에 대한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투자융자로 폭넓게 지원해 생산적 금융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강점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객과의 신뢰…그룹 가치 결정

4대금융 회장은 고객과 쌓아올린 신뢰와 변화의 깊이가 금융그룹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신뢰는 실력에서 나온다”며 “KB의 모든 임직원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정보와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KB에 가면 가장 앞선 AI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과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대를 이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사회로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 늘 신한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신한은 역시 다르다’는 자부심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불완전 판매를 극복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봐야한다”며 “불완전판매 극복, 보이스피싱 선제적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개혁 수준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인으로서 신뢰와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철저한 자세가 이제 우리금융의 진짜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쌓아올린 신뢰와 변화의 깊이가 우리금융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독립성 vs 민주적 통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 ‘촉각’

지정땐 운영전반 재경부 관리·감독
“정해진 방향 없지만 이달 중 결정”

관리·감독을 받는가의 기로에 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책임·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후보군 중 특히 금감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매해 2월 1일 이전에 공공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일부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해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금융시장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 검사가 부실했다거나 감독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종종 불거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이

나 결론은 없는 상태다. 정기 지정 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지정 요건과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비롯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편성, 경영평가, 임원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재경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놓인다. 이 경우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

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공적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정부)와 금감원(독립기구)이 이원화 체제로 함께 맡고 있다. 금융위는 종전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바뀐 명칭이다.

당·정은 지난해 9월 금융 ‘위’를 기재부(현 재경부)와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철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丙午年

2026년에도 유한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정진하겠습니다.

Progress & Integrity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SINCE 1926



제네릭 출시 75% 차질… 연구개발 ‘빈익빈 부익부’ 우려도

m-커버스토리

약가 인하 실효성 논란

제약사 규모에 따라 매출순실 차이 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가능성 높아 “금융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 필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쳤다.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더 높아지고 글로벌 진출이 막 시작된 K-제약·바이오 산업은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약가 인하의 과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대형 제약사만 살아남나…공포 커져

7월 시행을 앞둔 약가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맹점은 약가 인하의 충격파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진행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순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르렀으나, 추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순실률이 전체 10.5%로 가장 커졌다. 대형 기업(4.5%)의 두배가 넘는 규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모다.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 역시 중견기업 3653품목으로 전체 75.1%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비 투자 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발 위축도 중견기업(26.5%)과 중소기업(24.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제네릭 출시 계획도 상당수 미뤄지며 사업 축소 우려도 현실화 됐다. 응답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중 중견기업이 31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시장은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한 충격파가 산업 전반으로 미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제약산업 전망’을 통해 제네릭 외 제품(수출의약품·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의 포트폴리오 비중과 글로벌 판매, 기술수출 등이 실

적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확대 등에 따른 수요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대형 제약사의 외형성장세 지속 가능할 전망”이라며 “제네릭 신규 개발에 따른 이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이 역시 ‘빈익빈 부익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한신평은 “R&D 투자는 제약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도 “다만, 일부업체는 영업 청출 현금으로 연구개발비 충당이 어려워, 업체 간 영업현금 청출력 등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약가 인하 후 환자 부담 더 늘었다

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되레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보장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실제로 KPBMA 정책보고서의 ‘약가

인하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시 소비자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자인 강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증가는 단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소비자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한다”며 “수입의약품 판매 증가는 소비자 약제비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안 시행 이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약가 인하의 예상 효과를 분석해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건보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펀드,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투자 여력 부족한 중소 제약사 생존 불투명”

» 1면 ‘약가제도 개편…’서 계속

국내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살

기 위해선 변해야 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체질 개선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특히 전체 약제비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제네릭이란 캐시 카우 없이 신약 개발 투자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약가 인하 목표가 의료비 절감이 아닌,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R&D, 설비 투자가 이뤄지는 데 이 현금흐름이 사라지면 체질 개선은커녕 당장 생존도 불투명해진다”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들이 도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약가 인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이루려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이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선순환 투자에 대한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며 “약가 인하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재원 만큼 산업에 재투자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연초부터 불붙은 증시… ‘1월 효과’ 가시화

통계상 연초에 증시 상승 흐름 보여 기관 자금집행·기업 실적발표 등 영향

국내 증시가 2026년 개장 첫날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시장에는 장밋빛 전망이 넘치고 있다. 과거 통계상으로 연초엔 증시가 상승하는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새해를 맞은 증권가를 들뜨게 하고 있다. 통상 1월엔 기관 투자자의 신규 자금 집행이 시작되고, 연말 보너스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 韩, 통계적으로 1월 증시 강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 산출 기준시점인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의 평균 수익률은 2.12%로, 11월(2.48%), 7월(2.18%)에 이어 세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다. 연도별 1월 수익률은 46회 중 24회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22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코스닥 1월의 평균 수익률은 2.69%로, 열두 달 중 가장 높았다. 4월이 2.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11월(2.28%), 2월(1.93%), 3월(1.11%), 12월(0.66%) 등 순이었다.

1월에 증시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것은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종목을 매도한 뒤, 새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들어 다시 사들인 영향이라는 분석이나온다.

1월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각종 이벤트들이 속속 열린다. 우선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된다. 삼성전자는 8일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애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두 회사는 4분기에 호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4분기 연결 실적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46.5% 증가한 16조45억원, 매출액은 11.8% 증가한 88조6181억원이다. LG전자는 매출 23조5597억원, 영업적자 119억원이 예상된다.

오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도 주목을 받는다. 올

해 CES에는 853 개의 한국 기업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 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국가별 참가 순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 증권가 상승흐름 지속 전망

증권가에서는 올해 1월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투자수익률(ROI)의 구심을 가이던스로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라며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등 AI 전반 벤처체인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티증권 연구원은 “4분기 국내외 실적 시즌이 1월에 본격화되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코스피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7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매수세도 긍정적이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주식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자본시장 개혁 정책 등이 추가 유입 유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증시를 흔들 위협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충격, 무역 장벽, 미국 노동시장 악화, 물가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영업의 146% 증가 전망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계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업 호조로 역대급 실적 이 예상되는 반면 LG전자는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여파로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전체 실적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서만 매출 88조 6181억원, 영업이익 16조45억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75조7883억원)은 11.8% 늘고, 영업이익(6조4927억원) 대비 146.5%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매출 33조7000억원, 영업이익이 최대 1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4분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관세 부담과 전사적 인력 효율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23조5597억원, 영업적자 119억원 수준이다. 매출은 전년동기(22조7615억원)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1353억원)은 적자 전환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전자 부품 기업인 LG이노텍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로 인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성,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컨센서스 기준 4분기 매출은 48조 6464억원, 영업이익은 2조8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0.6%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글로벌 주요 완성차들이 수익성 악화를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가 비교적 안정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이전 대비 증가한 모습”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AI 수요 증가,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담 완화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환경으로 실적 개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허정윤 기자 zelkova@

“AI, 운용 주체 아니다… 판단 환경 바꾸는 도구”

인터뷰

김연추 미래에셋 웰스스팟 대표

“AI가 펀드를 굴린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핵심을 벗어난 거다.”

뉴욕에서 만난 김연추 미래에셋 웰스스팟 대표는 인터뷰 초반부터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오해를 분명히 선긋는다. AI는 운용 주체가 아니라, 운용을 둘러싼 판단 환경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이다.

웰스스팟은 미래에셋의 글로벌 AI 전략을 실무에서 구현하는 조직이다. 출범 1년 만에 AI 모델을 실제 ETF 운용 프로세스에 올렸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AI를 쓴 상품’을 늘리는 게 아니라, AI가 운용 판단에 개입하는 방식 자체를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김 대표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다. 그는 “AI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을 더 잘하게 만드는 인프라”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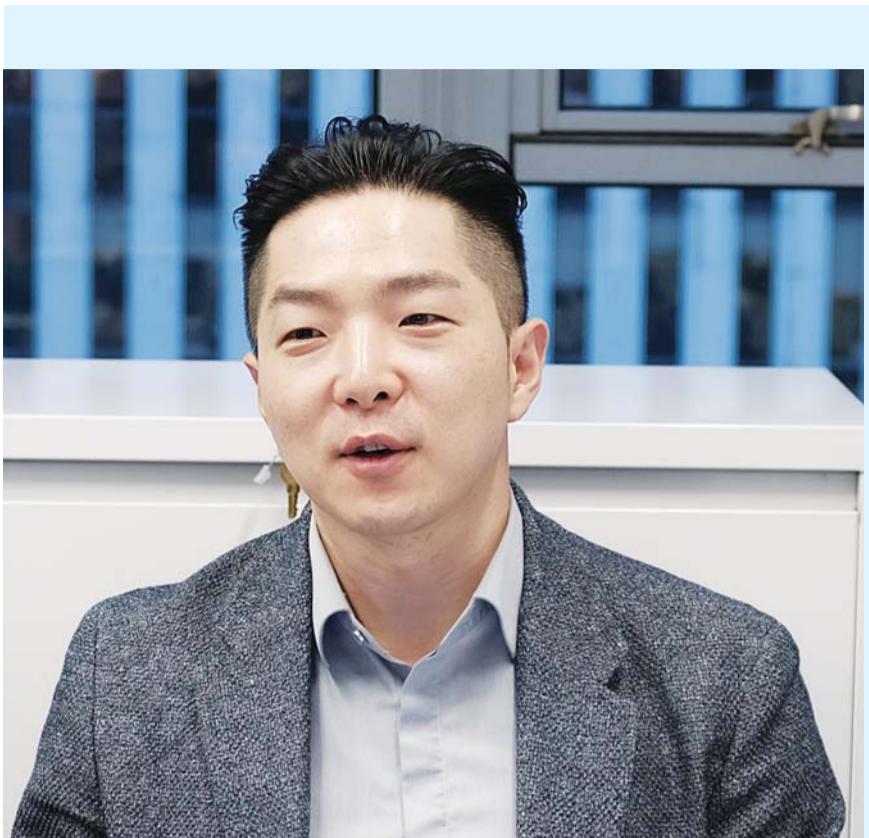
◆GXIG에서 확인한 AI의 역할… 뉴욕에서 본 글로벌 금융사의 AI

웰스스팟의 첫 실전 무대는 AI 모델이 적용된 ETF ‘GXIG(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였다. GXIG는 웰스스팟이 개발한 AI 기반 분석 모델을 미래에셋자산운용(MAGI US)이 회사채 운용 과정에서 리서치 인풋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AI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지 않는다. 대신 방대한 회사채 유니버스를 스크리닝해 상대적 매력도, 리스크 요인, 주목할 만한 변화 신호를 구조화해 제공한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최종 판단을 내린다.

김 대표는 GXIG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꼽는다. 과거에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면, 지금은 AI가 정리한 분석 위에서 운용이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AI가 데이터를 다뤄주는 덕분에, 사람은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경영진 리스크, 지정학 변수, 시장 분위기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에 더



“

뉴욕 현장서 본 글로벌 금융사 공통점

AI 활용 늘어도 판단 구조는 사람 중심
AI, 포트폴리오 아닌 리서치 단계 활용

”

GXIG로 확인한 AI 실제 역할 판단 인프라
회사채서 검증된 모델, 자산군 확장 준비
주식·원자재·가상자산까지 적용 구상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GXIG의 경험은 웰스스팟 내부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 회사채처럼 데이터가 패턴화되고 복잡한 시장에서 AI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이후 주식, 원자재, 암호화폐 등 다른 자산군으로 모델을 확장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뉴욕에서 본 글로벌 금융사와 빅테크는 AI를 리서치·리스크 관리 등 여러 영역에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람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쓰는 단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웰스스팟은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진 않지만 AI를 더 비중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말한다.

특히 리서치 영역에서는 LLM이 자료 요약, 공시 검토, 경쟁사 분석의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이를 검증·보완하는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LLM이나 API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리서치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묶는 시도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AI가 의사결정을 완전히 대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대신 중요한 것은 AI를 어디에, 어떤 단계에 배치하느냐다. 판단이 전의 정보 정리, 패턴 탐색, 후보군 압축 같은 영역에서 AI의 효율은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천 품질 자체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양한 자산군과 국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생태계 측면에서는 아직 발전 여지가 크다고 봤다.

◆웰스스팟의 ‘다음 단계’

GXIG 이후 웰스스팟의 다음 행보는 분명하다. 자산군 확장과 모델 포트폴리오의 고도화다. 현재 회사채 중심으로 검증된 AI 분석 파이프라인을 주식, 원자재, 암호화폐까지 확장하고 있다.

다만 이 확장은 ‘AI가 더 많은 것을 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다. 각 자산군을 담당하는 전문 운용역들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산별로 최적화된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쪽에 가깝다.

김 대표는 “같은 모델을 모든 자산에 억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자산군마다 데이터 특성과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모델도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AI 모델 제공 조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기반을 인정받는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ETF 발행사 라이선스를 갖추고, 그룹 전략과 정합적인 자체 브랜드 ETF를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도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

◆AI 시대에도 판단은 사람의 몫

AI 고도화와 함께 설명 가능성(XAI)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의 판단도 100%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웰스스팟의 모델은 결과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사람이 이를 검증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AI는 리서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종 책임은 운용 주체에게 남겨두는 구조다.

그는 AI 기반 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사람의 개입과 책임’을 꼽는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확인한 글로벌 금융사의 AI 활용과 웰스스팟의 전략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AI는 운용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운용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뉴욕=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 글로벌 성과 가속… 실적·지분가치 ‘상승곡선’

해외법인 호조 2년 연속 1조 클럽 기대
AUM 1000조 돌파, 글로벌 금융사 도약
미국리어링·인도 인수 IB 경쟁력 강화
주가 급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 주목

미래에셋그룹이 해외사업에서 눈에 띠는 성과를 내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이 예상된다. 실적 개선과 지분 가치 상승세도 이어가며 주가도 상승 곡선이다.

4일 하나증권 등 증권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예상 영업이익은 1조3957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2783억원이다. 순영업수익은 3조 4478억원이다.

올해 영업이익은 1조5558억원이 예상된다. 순영업수익은 3조5249억원이다.

특히 해외법인의 성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법인에서 3·4분기 508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하며, 1108억의 누적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인도 현지 증권사 ‘미래에셋 쉐어カン’을 인수한데 이어 미국서는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현지 클리어링(Clearing)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등 글로벌 IB로서 인정받은 결과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 전문지 글로벌 파이낸스가 주관하는

2026년 베스트 프라이빗뱅크 어워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라이빗뱅크’로 선정됐다.

이 같은 성과에 지난해 9월 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운용자산(AUM)은 1055조원에 달했다. 이번 기록은 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창립한 이후 28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특히 지난해 말 AUM 906조 6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초고속 성장을 실현했다. 일본 노무라홀딩스의 AUM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6460억달러(약 907조원)로, 노무라 그룹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도

획득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이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신사업 확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의 장밋빛 미래는 주가가 말해준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상승률은 190.78%로 전체 증권사 1위였다. 키움증권(157.56%), 한국금융지주(128.71%) 등을 압도한다.

/허정윤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韓-中 경제협력 '수평구조' 전환·'한한령 해제' 물꼬 주목

李 대통령, 3박4일 中 국빈 방문

시진핑 주석 APEC 방문 대한 답방
오늘 시 주석과 정상회담 일정 예정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4일간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한중 협력 심화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 참모진과 함께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이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서열 2위와 3위인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한다.

우선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후 첫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스

공식 일정으로 재중국 한국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 대표들과 교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6일에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천진ning 상하이시 당서

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분야의 양국 창업가들을 만난다.

이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양

국이 공유하는 역사를 기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 심화 및 한한령(限韓令) 해제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을 기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는 한미 간 경제협력으로 인해 한중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다면, 현재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으로 구도

가 달라져서다. 이로써 한중 간은 '보완'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됐고, 이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의 영역을 빌려야 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한한령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서해 문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고, 이후 실무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대화 채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변화된 경제 구조에 맞춰 공급망과 문화 콘텐츠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野, 연초부터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强대치'

與 오는 8일 2차종합특검 처리 예정 통일교 특검엔 신천지 수사대상 포함 野 "지선까지 내란몰이 지속 술수 통일교-與 정교유착 은폐 수사도"

여야가 연초부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데 모은 2차 종합특검과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강도 높은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해 말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하게 통과를 반발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

별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안 처리를 노리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2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2차 종합특검안에 따르면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운용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수사하고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안을 새해 통

과시키는 첫번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 됐음에도 한번 더 추진하는 건 지방선거 까지 '내란몰이'를 지속하려는 여당의 술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이 통일교의 주요 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해체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갑자기 끼워넣는 것은 '물타기'일 뿐이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민주당안에서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안에 담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자신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제3자 기관 추천'이라고 포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한데,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종합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번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7일 전체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

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래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국회 의장께선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당연히 신천지를 포함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안에 담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자신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제3자 기관 추천'이라고 포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이외에도 '민주당 공천 독점'에 의혹'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이 이미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공천 현금' 의혹 일파만파… 野, 지지율 '20%대' 박스권

양당,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악재 타파, 쇄신안 모색 나서

6·3 지방선거를 5개월 여 남긴 가운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지난 지선 당시 공천 현금 수수 및 공천 관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2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서 탈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의 공천현금 의혹이 터져나오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일을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당의 공천 시스템을 비롯해 당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매우 불미스런 사건이 터졌다"면서 "국민들과 당원동지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하여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

조를 다 할 것이다.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겠다. 이번 일을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번에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헌 당규를 철저하게 엄수하도록 하겠다.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당에서 철저히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후보는 공천현금 수수 의혹을 두고 "그게 형사기소가 된다든지,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사실이면)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4일 원내대표 직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당에서 가장 강하게 대응을 했다"며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당에서 할 수 있는 강한 조치이고, 윤리심판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집권여당에 악재가 터졌음에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당원 계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인 '당원 계시판 논란'에 모든 이슈를 빨아드린다며 내부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제1야당임에도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주에 발표 예정인 당 쇄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의원, 광역단체장,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중도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쇄신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소장파 및 개혁론자들은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게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당의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방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후 "우리 당의 지금 모습으로 지방선거는 도전해보나 마나"라고 밝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당의 공천현금 수수 의혹의 뒷배에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태홍 기자

Krispy Kreme
DOUGHNUTS

* PEANUTS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보험업계 화두, 판매 → AI운영책임·고령사회 돌봄 전환

AI기본법·돌봄지원법 곧 시행

전사 AI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등 올해 AI 도입보다 '통제' 핵심과제 치매정책 돌봄→재산권보호 이동

올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화두는 상품 판매에서 '규제 하 운영책임'과 '돌봄·자산보호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I 활용이 확산하는 동시에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 정책이 본격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전사 거버넌스와 서비스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AI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쓰기 위한 공통 규율'에 초점을 둔 법이다. 고령형(고위험) AI, 투명성, 안전성 같은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위험관리와 인간에 의한 감독 등 준수 의무의 틀을 마련해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하위 법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 32곳은 AI를 업무



Chat GPT가 생성한 올해 보험업계 이슈와 화두 이미지.

에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험업권은 이미 AI 도입 단계에 들어섰지만, 2026년부터는 도입보다 '통제'가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안)이 공개되면 AI 안전성 확보 절차, 고령형 AI 해당 여부 판단, 투명성 고시·표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보험사로선 AI를 도입했느냐보다는 어떤 데이터·모델을 썼

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가능한 체계, 민원·분쟁 시 책임소재를 정리하는 내부통제, 개인정보·보안 및 그 관리까지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보험연구원은 AI 관련 과제로 ▲영업지원 분야에서 AI를 '능동형 툴'로 확대 ▲전사 AI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AI 리스크를 상품·서비스로 사업화

등을 꼽았다. 단순한 상담 스크립트 생성 수준을 넘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업무를 연결·처리하는 형태로 고도화되는 만큼 광고·설명 책임, 취약계층 보호, 개인정보·보안, 사람의 감독 등 통제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보험소비 경험 및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AI 적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뢰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은 '보험의 역할' 자체를 넓히는 이슈로 제시됐다.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시행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가 본격 작동하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치매 정책은 돌봄에서 '재산권 보호'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인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154조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2026년 19억원을 투입해 치매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보험사 역시 보장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통합돌봄 인프라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 신탁·자산보호 제공자 등 '노후 리스크 매니저'로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보장 역할은 재가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금융-돌봄 연계형 재정 인프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돌봄 인프라의 민간 공급자이자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금융, 올해 경영전략 '전환과 확장' 제시

AI활용 디지털 시무식

양종희 회장 "강점·기반 지키고 새로운 환경 맞춰 사업방식 전환"

KB금융그룹이 올해 경영전략으로 '전환과 확장'을 제시했다. 혁신을 강조하며 시무식도 대면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열렸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지난 2일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무식을 통해 "올해 그룹의 경영전략과 경영계획 방향은 바로 전환과 확장"이라며 "KB의 강점과 기반은 확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고객과 시장까지 우리의 시야와 사업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무식은 별도의 대면 행사 대신 양 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AI 영상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 신년사를 통해 진행됐다. 양 회장은 AI 영상으로 재현됐고, 임직원들은 각자의 근무여건에 맞춰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했다.

양 회장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



AI 영상으로 재현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비대면 디지털 시무식을 하고 있다. /KB금융

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자문과 상담 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부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 효율적 IB 비즈니스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누구나 KB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본연의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고객과 시장의 '확장'을 통해서는 유스(Youth), 시니어,

중소법인, 고자산가 등 그동안 놓쳤던 전략 고객군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고,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 AI 비즈니스 시장에서 고객과 사업기회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리테일을 넘어 금융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내놨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리테일 금융의 강자'라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고객과 사회 트렌드 변화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KB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은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은 행 경영의 지향점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부영태평빌딩에 9개국 대사관·공관 입주

세르비아·파라과이·볼리비아 등 "보안기준 충족… 서울의 외교거점"

부영그룹의 부영태평빌딩에 9개국의 대사관과 외교공관이 입주해 서울 도심 내 외교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 시청 일대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는 ▲유럽의 세르비아 ▲남미의 파라과이, 볼리

비아, 페루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아시아의 캄보디아 대사관 등과 스페인·페루 대사관 소속 무관실, 스페인과 학기술개발센터 등 총 9개국 대사관 및 외교 공관 기능이 입주해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대륙의 외교 공관이 한 건물에 집결한 사례는 국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부영태평빌딩

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사관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외교 특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며, 각국 외교관 및 귀빈들을 위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외교 클러스터로서의 상징성은 건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인천 중구 중산동에 들어서는 '영종 하늘도시 대라수 어썸'은 지하 1층~지상 최고 40층, 3개 동, 총 297가구 규모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달빛초(개교 예정)를 비롯해 중산중, 중산고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국제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 단 한 곳에서 예정돼 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5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m² 1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주요 상업시설이 가깝고,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을 이용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0곳,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전국 5곳서 총 756가구 올해 첫 집들이

분양 갤린더

1월 첫째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756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지난해 연말 분양 물량이 집중되면서 새해 첫 주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다.

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영종 하늘도시 대라수 어썸'(297가구),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전주 에코시티 더 클래스'(48가구), 전남 해남군 '해남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305가구)의 청약이 이뤄진다. 경기 양주시 '양주역 중흥S-클래스' 공공 지원 민간임대와 광명시 '광명 퍼스트스위첸' 오피스텔도 청약에 나선다.

/안상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LG전자, 홈 로봇 '클로이드' 공개 가사노동 없는 새로운 일상 제안

미리보는 CES 2026

인간과 교감하며 다양한 업무 수행
청소·요리·가전제어·비서 등 가능
“제로 레이버 홈” 향한 노력 지속”

LG전자가 상황에 따라 가전을 제어하고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홈 로봇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이번 CES에서 AI 홈 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케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여러 가전을 제어하며 가사일도 직접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해낸다.

관람객은 LG 클로이드로 한층 가까워진 '제로 레이버 홈'의 구체적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예시로 클로이드는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짜놓은 식사 계획에 따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크루아상을 넣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차 키와 프리젠테이션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춰 준비물도 챙겨 전달한다.

이와 같은 동작들은 상황을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거주자의 라이프스



LG전자의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모습. /LG전자

타일을 학습하는 능력, 정교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능력의 종합적인 결합으로 가능하다.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몸체, 훨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하체로 구성된다. 하리를 세우는 각도를 조절해 105cm부터 143cm까지 키 높이를 스스로 바꾸며, 약 87cm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높은 곳에 있는 물체도 잡을 수 있다.

몸체에 달린 두 팔은 어깨 3가지(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가지(굽혔다 펴기), 손목 3가지(앞뒤·좌우·회전) 등 총 7가지 구동 자유도(DoF)로 움직인다. 이는 사람 팔의 움직임과 동일한 수준이다. 5개 손가락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을 갖추고 있어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다.

하체에는 청소로봇·Q9·서빙로봇·배송로봇 등을 통해 발전시켜 온 훨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했다.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매달려도 균형을 쉽게 잃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림이 적어 정교하고 자유로운 상체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머리는 이동형 AI 홈 허브로 개발된 'LG Q9'의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 두뇌인 칩셋,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카메라와 각종 센서, 음성 기반의 생성형 AI 등이 탑재됐다.

LG전자는 칩셋에 자체 개발한 시각 언어모델(VLM) 및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적용했다. 피지컬 AI 모델을 기반으로 가사작업 데이터를 수만 시간 이상 학습시켜 홈로봇에 최적화한 기술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로봇 사업을 겨냥해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도 처음 공개한다. 액추에이터는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을 합친 모듈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LG전자 HS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인간과 교감하며 깊이 이해해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정부 '항공사 운수권 배분기준' 개편

LCC업계, '정비 체계·지연 대응' 경쟁력 부상

안전성 배점 35점→40점 상향 조정
업계, 정비센터 신설 등 대응 나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정비 인력과 체계, 지연 대응 능력을 운수권 평가 항목에 본격 반영하면서 각사별 안전 관리 수준이 노선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총 정비인력과 시간을 뜻하는 정비 공수(맨아워)를 기준으로 정비 인력을 산정·운영하고, 정비 인프라 투자를 이어온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새 평가표에서 관리 수준이 평가 점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참사 등을 계기로 운수권 배분 기준을 지난달 30일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운수권 평가에서 안전성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됐으며,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 현황과 전년 대비 정비 인력 증가율이 정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됐다. 항공안전교육 등 현안 대응 노력과 난기류 대응 노력도 정성 평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명령 이후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감점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로 전환하면 국가 정책기여도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기존 노선 지연 감소 노력과 장기 지연에 대한 대응 능력, 이용자 보호 조치 역시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

주요 LCC들은 이미 맨아워 기준에 따라 정비 인력을 산정·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535명)은 고시 기준을 50~60명 상회한다고 밝혔고, 이스타항공(약 250명)은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530여 명, 진에어는 327명(지난해 11월 말)으로 집계됐으며 4개사 모두 권고·고시 기준을 충족(또는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정비 인력 확충과 함께 항공사들은 지연 감소와 운항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정비 인력 증가에 따라 지난해 1~11월 정비 지연율이 0.52%로, 지난 2024년 동기(0.89%) 대비 0.37%포인트 낮아졌다. LCC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정비전문교육기관(ATQ) 인기를 받아 정비 교육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미국 보잉과 조종사 역량 기반 훈련·평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정비 인력을 560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유

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김포국제공항에 약 1700평 규모의 통합 정비 센터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부품 관리와 항공기 점검·수리, 정비 교육을 한 곳에서 수행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으며, 해당 자금은 항공기 정비 충당금 적립과 항공기 임차료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약 2만평 규모 부지에 자체 항공기 정비 격납고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시설은 오는 202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B777 등 대형 기재의 중정비를 대한항공에 의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주항공 등 주요 LCC들은 고시 기준보다 많은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정비 인력 뿐 아니라 난기류 대응이나 현안 대응 노력 등 운영 전반의 관리 체계가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한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운 기자 dhaledhale@

국내 車업계, 보조금 공백 메운다 자체 할인 등 새해 구매혜택 확대

르노코리아 전기차 일부 자체 보조금
한국GM 애스컬레이드 등 현금 할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새해를 맞아 자체 보조금과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기존 보조금 지원에 이어 새해 첫 달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는 새해 1월 할부 구매 시 3년 3.3%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해도 금리는 3.9%다. 일반 구매 고객에게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E-Tech 모델 구매 시 각각 190만원과 90만원의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르노코리아 2026년형 그랑 콜레오스

쿠�퍼형 SUV '아르카나'는 1%대 정액률 할부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르카나 1.6 GTE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1.99% 할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1월 최대 혜택 규모는 270만원이다.

준중형전기 SUV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이하 세닉 E-Tech) 구매 고객을 위한 르노코리아의 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지난 연말 고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1월에도 계속된다. 르노코리아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연말·연초에도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물량에 대해 한시적인 자체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세닉 E-Tech 구매고객을 위한 르노코리아의 자체 보조금은 기존 고객들이 거주 지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비·지자체 보조금 총액의 전국 평균치인 800만원 규모다.



캐딜락 애스컬레이드 IQ

한국GM 산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은 플래그십 SUV와 럭셔리 전동화 모델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리릭(LYRIQ)은 최대 1700만원의 현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36개월·48개월·60개월 무이자 제휴 할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전동화 모델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과 구매 선택 폭을 한층 넓혔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의 기준을 제시하는 더 뉴 애스컬레이드 ESV 구매 고객에게는 500만 원 현금 할인과 함께 평생 앤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최대 10회)이 제공된다. 또한 36개월·48개월·60개월 저리 제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구매 계획에 맞는 금융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개소세 인하 연장… 친환경차 세제혜택 일몰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등 추진

2026년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된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배터리 안전성 강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의 단계적 종료 등이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 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

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며,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6월부터 의무화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올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중기부 산하기관들,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 복원 나선다

중진공, 11.5조 정책금융 성장 견인 기보, '해외 기술금융 허브' 비전 제시 기정원, '돈 되는 R&D' 집중 지원 공영홈쇼핑, AI·데이터 전환 추진 한벤투,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탄탄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초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기부의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4일 개별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를 총 11조5129억 원으로 확정했다. 중진공은 이를 예산을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수출 지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 지원 ▲지역·AI·인재 중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견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정책 금융을 인공지능(A), 바이오(B), 문화콘텐츠(C), 방산우주항공(D), 에너지(E), 제조혁신(F)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사업도 더욱 확대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주재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기부

다.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 AI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AI 사업단' 운영이 대표적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금년에는 자금지원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현장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사적 지원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지난 2일 부산 본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 허브'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

했다. 기보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기술금융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원 확대 ▲기술거래 보호·M&A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 공정성장 실현 ▲AI 전환(AX)에 기반한 업무 및 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제시하며 국가·기업·기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올해 '성장'에 방점을 뒀다. 기정원은 올해 '기술사업화 R&D' 부문에선 사업화 전용 사업을 신설해 '돈이 되는 R&D'에 집중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 R&D'는 팀스(TIP S)→스케일업팀스→글로벌팀스로 사업을 재편,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지원 과정에서 지역기업도 우대한다.

공영홈쇼핑은 ▲공공성과 공정성 중심의 플랫폼 가치 강화 ▲AI·데이터 기

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고객 경험 혁신과 신뢰 기반 서비스 재정립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 대행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는 조직문화 개선, 내부 소통 강화, 직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임직원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현 박성호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기관장 모집절차를 진행해 2배 수까지 압축하는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조성'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는 기존의 '6본부 3실 20팀 6사무소 1센터'에서 '6본부 4실 23팀 6사무소 2센터'로 조직을 개편,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희 대표는 "이번 조직 개편은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펀드 관리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새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첫단계"라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중기벤처 판로를 담당하는 한국중소벤처유통원은 이달 15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홈앤쇼핑 적립·결제혜택 강화

이달 한 달간 신년 감사 이벤트

홈앤쇼핑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전사 프로모션 '2026 & 클럽 골든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4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풍성한 경품과 적립 혜택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페스티벌 기간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주문 1건당 응모권 1매를 지급한다. 또 추첨을 통해 플래티넘 유저권, 골드바, 적립금 등 다양한 신년 선물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진행하는 '밸런스게임' 이벤트를 통해 구매 고객에게 주문 1건당 1회의 응모 기회를 부여하고, 총 2026명을 추첨해 적립금 및 현금 혜택을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제 혜택도 강화했다. 1월 중 홈&Pay 주말 행사 기간에 3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즉시 할인을 제공하며, 홈&Pay 생애 첫 결제 고객에게는 5000원 추가 적립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빅적립데이'는 1차 4일, 2차 15일, 3차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해당 기간 기획전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할 경우 10% 추가 적립 혜택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사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쇼핑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신년사 “위기돌파 해법, 기술 경쟁력”

이차전지 침체 속 '기술 경쟁력' 돌파구
기술 리더십·글로벌 고도화 '경영 2.0'
원가 혁신·설비 효율로 흑자체제 추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기술로 성장해온 에코프로가 위기를 돌파하려면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 창업주가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결국 답은 본원적 기술 경쟁력에 있다"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에코프로는 올해 경영방침으로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통한 흑자체제 구축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 리더십과 관련해선 오픈 이노베이션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신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은 올해를 '글로벌 경영 2.0' 원년으로 삼아 고도화한다. 유럽 전초 기지인 협기리 공장은 상반기 상업생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품질·안전·환경 등 관리 체계를 한층 정교화하고, 인도네시아 제련소는 이의 구조를 더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신뢰 강화와 신규 고객 확보도 병행한다. 이 창업주는 "고객과 함께



2일 청주 본사에서 개최한 에코프로 그룹 시무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에코프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상생 기반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SDI, SK온 등 파트너와 함께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가동률 제고, 원가 혁신,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올해 전 사업장의 흑자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룹 내 기족사 물적 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창업주는 "임직원 3600명 모두가 에코프로의 주인"이라며 "수처행주의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운 기자 dhaledhale@

“효율·안정감 모두 쟁진 전기 세단”

자동차 시승기

기아 EV4

주행의 균형·완성도 높은 전기차
장시간 운전도 부담없는 주행 완성

전기차를 평가하는 잣대는 확실히 바뀌었다. 수치로 드러나는 성능보다 운전자가 느끼는 질감과 완성도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기아 EV4는 전기차 특유의 과장된 감각을 덜어내고, 운전의 흐름 자체를 매끄럽게 다듬은 세단에 가깝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EV4를 타고 2박 3일 동안 군산 일대를 달렸다. 도심과 국도, 고속도로 등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섞인 주행이었고 히터와 온열 시트는 계속 켜 둔 상태였다. 주행을 마친 뒤 계기판에 표시된 전비는 7.1km/kWh 공인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전기차에서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전비 그래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운전자가 효율을 의식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리듬을 유지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EV4의 주행은 가속 폐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공격적이지 않다. 뛰어나가는 대신 속도를 차곡차곡 쌓아올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심에서는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국도에서는 필요할 만큼만 힘을 보태며 여유 있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전기차 특유의 급가속이 주는 긴장감보다



기아 EV4. /기아

는, 잘 다듬어진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향과 차체 반응은 어색하지 않게 통일된 느낌을 준다. 스티어링 휠은 가볍지만 허전하지 않고, 핸들을 돌리는 만큼 차체가 즉각 반응한다. 군산 시내의 좁은 골목이나 교차로에서는 차가 작게 느껴질 정도로 움직임이 경쾌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순간에도 차가 먼저 반응해주면서 운전자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노면에서의 주행은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을 단번에 놀려버리기보다는, 한 번 걸러 부드럽게 풀어낸다. 저속에서는 묵직한 세단처럼 노면을 놀려주고, 속도가 붙으면 안정감을 더한다. 노면 상태가 달라져도 차의 반응이 갑자기 변하지 않고, 전 구간에서 일정한 감각을 유지한다는 점이 EV4 주행의 핵심이다. 전기차에서 종종 느껴지는 꿀렁거림이나 이질적인 감속감도 거의 없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업스테이지, '中 AI 표절' 논란 공개 기술검증·사과로 일단락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선발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중국 모델 표절' 논란이 공개 기술검증과 당사자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업스테이지의 AI 모델이 외산 모델을 베꼈다는 의혹은 짧지만 격렬한 기술 공방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 AI 검증 시스템과 개발 투명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가대표 AI 1차 발표회 이후 제기됐던 업스테이지 AI 모델의 중국 모델 유사성 논란이 기술검증회를 거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논란은 지난 1일 AI 스타트업 사이오닉AI의 고석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 편의 분석 리포트에서 시작됐다. 고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100B' 모델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이'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Fine-tuning)한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내세운 결정적 근거는 두 모델의 신경망 레이어 정규화(LayerNorm) 파라미터 값이 96.8%에 달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솔라 모델의 일부 코드에서 중국 지푸AI의 저작권 명시가 발견되면서 의혹은 '중국산 모델 택갈이'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업스테이지가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등 대기업들과 함께 국가대표 AI 모델을 뽑는 정예팀에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었기에 파장은 더욱 커졌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사업에 외산 모델의 복제품이 제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이튿날인 2일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개 검증회를 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개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학습 과정이 담긴 원천 데이터를 전격 공개했다. 그는 AI 모델 개발을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비유하며, 학습 단계마다 기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 참석해 업스테이지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

국가대표 AI 1차 발표회 이후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 의혹 제기

업스테이지, 검증회로 정면대응
학습과정 담긴 원천데이터 공개
기술검증 후 고 대표 사과로 종지부

된 체크포인트와 학습 로그(W&B)가
곧 모델의 '육아일기' 이자 독자 개발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솔라 오픈 100B'는 학습 초기 단계에서
매우 높은 손실(Loss) 값을 보이다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는 곡선
을 그렸다. 이는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가져온 파생 모델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프롬 스크래
치 모델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또한 논
란이 된 레이어드 유사도에 대해서는 코
사인 유사도가 방향성만을 측정하는 지
표이기에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라고 반
박하며, 전체 모델 파라미터 중 해당 구
간은 0.00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기술적 공방 끝에 의혹을 제
기했던 고석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레이
어드 유사도만으로 모델의 가중치 공유
여부를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엄밀한 검증 없이 내용을 공
론화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성훈 대표 역시 이 사과를 수
용하며 사흘간 이어진 '표절 공방'은 표
면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오히려 대한민국
AI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혁신은 투명하고 치
열한 검증 속에서 단단해진다. 건전하
고 투명한 기술적 토론이 활성화될수록
우리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강력한 자양
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AI 생
태계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한 심판이자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프롬 스크래치 검증 이슈를
프로젝트 책임자인 배 부총리가 마무리
해 줬다"며 "기술적이면서도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 깔끔한 승복까지 이어진
과정이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
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
일부터 15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정예팀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TTA)는 업스테이지가
제출한 체크포인트 파일 등을 바탕으로
실제 프롬 스크래치 개발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 대표 교육축제로 자리매김

올해 10주년 맞아… 코딩문화 확산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네슨의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가 청소년들이 코딩
을 통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방식을 키우는
대표적인 교육 축제로 자리 잡았다.

4일 네슨에 따르면 2016년 '세상을 바
꾸는 코딩'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네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는 네슨 게임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와 시
뮬레이터 기반 인터랙티브 문제를 도입
하며 코딩 경험에 없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회는 2017년 이후 매년 4000명 이
상이 예선에 참가했고, 지난 10년간 누
적 참가자는 약 4만 명에 달한다. 본선
진출자는 673명, 수상자는 193명이다.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코딩 문

화 확산을 목표로 외연을 넓혀왔다. 네
슨은 2017년부터 5년간 토크콘서트를
운영하며 기술 전문가를 초청해 청소년
에게 진로와 비전을 제시했다. 2020년
에는 이틀간 3800여 명이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역대 수상자들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회의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
월에는 역대 수상자들이 제주 지역 중고
등학교를 방문해 코딩 멘토링과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는 코딩 교육 봉사 캠프를
열었다. 수상자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
고 교육 봉사에 나서는 구조는 코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회의 방
향성을 보여준다.

문제 출제 방식도 차별화를 이어왔다.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모바일, 데
이브 더 다이버 등 네슨 주요 게임을 활용

용한 알고리즘 문제와 시뮬레이터 기반
문제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참가자
들은 무료 코딩 교육 플랫폼 '비아이케
이오'와 연계해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며 단계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코딩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참가자 설문조
사에서는 성장성과 화장성이 확인됐다.
올해 예선 참가자의 52%가 신규 참가자
였고, 90% 이상이 재참가 의향을 밝혔
다. 올해 처음 선보인 대학생 팀 전략 대
회 코드배틀에 대해서도 참가자 10명 중
8명이 도전 의사를 보였다. 코드배틀 참
가자 설문에서는 절반 가량이 신규 참가
자로 나타나며 생태계 확장 가능성도 보
여졌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다음' 매각설 재점화

AI 중심 전환 실행단계 진입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분리한 이후
매각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자, 인공지
능(AI) 중심 전략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의 향후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
하는 가운데, 매각 가능성을 포함한 다
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
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매각 발표는 없지만,
최근의 조직 개편과 사업 재편 흐름을 종
합하면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는 어
렵다는 평가가 업계 인내에서 나온다.

매각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중
다음, 축적된 데이터로 AI 활용도 높아
AI기술·중견IT 기업에 '매력적' 대상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다음 운영 조
직을 물적 분할해 AXZ라는 별도 법인
으로 분리했다. 당시 카카오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독립 운영 체제 구축을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고장기적으로는 매각이나 외부 투자 유
치를 염두에 둔 구조 개편이라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털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면 재무 구조와 인력, 자산이 명확해져 거래나 지분 조정이 수
월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검
색과 뉴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전
통 포털 모델은 모바일과 AI 중심 환경
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에서 경쟁력
이 약화됐다. 네이버와 글로벌 베테크
에 밀리며 검색 점유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광고 매출 역시 성장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다음은 카카오톡이나 AI
사업에 비해 전략적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의 향후 방향
을 두고 '매각'이라는 선택지가 다시 거
론되는 배경에는 카카오의 전사 전략 변
화가 자리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비핵심 계열사 정리와 조직 슬림화
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온다. 특히 AI 기반 플랫폼 확보와 AI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에 속도를 내며, 카카오톡과 AI를 중심
으로 한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
다. 다음 역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다음이 여전히 보유한 자
산 가치에 주목한다. 뉴스, 카페, 블로그
등에서 축적된 대규모 콘텐츠와 이용자
데이터는 AI 학습과 서비스 고도화 측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 때문에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은 AI 기술 기업
이나 중견 IT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이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업
계 일각에서는 다음 매각이 성사될 경
우, 단순한 포털 인수가 아니라 'AI 데
이터 기반 플랫폼 확보' 성격이 강할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포털 서비스
특성상 뉴스 편집과 공적 책임, 이용자
보호, 고용 승계 문제 등이 뒤따를 수 밖
에 없다. 과거에도 다음 매각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내부 구성원 반발과 사회
적 파장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실제 매각에 나서더라도
속도 조절과 단계적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이전
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
다. 다음이 이미 독립 법인 체제로 전환
됐고, 카카오의 AI 중심 전략 역시 선언
을 넘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
다. 다음의 매각은 단순한 사업 정리가
아니라, 카카오가 어떤 기업으로 재정
의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
로 매각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을
장기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신호
도 보이지 않는다"며 "법인 분리 이후 다
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
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시대에 포털의
역할이 바뀌는 상황에서 다음의 활용 가
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누가 어떤 전
략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음의 미래
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유플러스원', 日 이용자 약 25% ↑

기존 고객센터·멤버십 서비스 통합

LG유플러스는 통합 앱 '유플러스원
(U+one)' 출시 이후 일간 활성 이용자
(DAU)가 약 25% 증가했다고 4일 밝혔
다.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묶고
대화형 인공지능(AI) 기능을 적용한 점
이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
석된다.

'유플러스원'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앱으로, 기존에 고객센터와 멤버십으로
분리돼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
다. 통신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용
동선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플
러스원'의 DAU는 기존 고객센터 앱
'당신의 유플러스' 대비 약 25% 늘었
다. 단순가입자 수 증가보다는 앱을 정
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확대된 것
으로 해석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심플한 통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보인 통합 앱 '유플러스원'
출시 후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약 25% 증
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
러스 직원이 유플러스원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앱 체류 시간도 기존 대비 약 21% 증
가했다. 이용자들이 하나의 앱에서 여
러 기능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파이어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뉘른베르크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뉘른베르크

●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S& Miles
기업 전문 여행사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남동발전, 마곡 집단에너지 본격화 친환경 열병합으로 난방 안정성 높여

서울 서남권 난방난 해소사업 추진 사업비 7000억 규모 7만 세대 공급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기대 주거 개발 뒷받침 인프라 구축

한국남동발전이 장기간 표류해온 서울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마곡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열공급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공동개발협약·JDA)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서남권 일대에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집단에너지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7000억원 규모로, 전기 285MW, 열 190Gcal/h급 친환경 열병합발전(CHP) 설비가 들어선다. 완공 시 마곡·강서 지역 약 7만 세대에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남권은 마곡지구 개발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잇따르며 인구 유입이 급증해왔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지역난방 공급 시설 구축은 지연되면서 겨울철 난방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집단에너지시설 구축으로 난방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서남권 재개발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안정



마곡도시개발지구 전경.

/남동발전

적인 난방 인프라는 주거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서남권 주거 환경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동발전은 기존 열전용보일러(PLB) 중심의 열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고효율 친환경 열병합설비(CHP)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대폭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생산 효율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는 지역난방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동발전은 경쟁력 있는 요금 체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남동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시설 건설과 운영을

주도한다. 분당·안산복합발전소 등에서 축적한 열병합발전 운영 경험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급증하는 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열전용보일러(PLB)를 우선 준공해, 입주 초기 난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2031년 적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강기운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남권역을 서울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행복 인프라'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에너지공단, ZEB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지 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원격발전·PPA 조달 방식 첫 도입 고층·대형 건축물 ZEB 참여 확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대지 외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원격 발전설비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한계가 있는 대형·고층 건축물로, 연면적 3만m²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참여 건축물은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 방식으로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최대한 설치한 뒤 부족분에 대해 대지 외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단은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대체 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와 실현 가능성, 흥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업 대

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노력과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 방식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큰 상징적 사업지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막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 선정도 가능하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녹색건축센터 운영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업 R&D 2348억 투입

신규 과제 12개, 456억 규모 지원

정부가 올해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관련해 AX(인공지능 전환), 첨단바이오, 기후변화대응, 푸드테크 등에 초점을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주요 R&D 사업에 전년대비 16.9% 증가한 총 23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중 신규사업 예산 287억 원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 456억 원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투자 분야는 ▲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 기술 혁신(335억 원) ▲농업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기술 선점(510억 원) ▲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389억 원) ▲기후위기 및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 기술개발(732억 원) ▲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기반 확보

(382억 원) 등 5대 분야이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충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신규 과제는 5일 주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공고가 진행되며, 2~3월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개발', '농생명자원 기반 필수의약품 원료 공급망 대응 기술개발',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개발',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기술개발'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AI 대전환, 첨단바이오 육성, 기후대응·탄소중립 기술, 푸드테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확보한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상용화함으로써 국민들도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소한 맞아 편의점 전용 홍삼제품 선봬

체온 유지·혈액 순환 도움

농협이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올해 1월 5일)을 맞아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삼 제품을 추천했다. 홍삼은 체온 유지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4일 농협홍삼에 따르면 '통째로 갈아 넣은 진홍삼스틱'에는 진세노사이드 6mg이 함유돼 있다. 추운 겨울철 원활한 혈액 흐름을 돋우고 신체 활력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홍삼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전체식 방식을 적용해 뿌리와 인삼열매(진생베리)를 함께 담아 냈다. 경제수를 섞지 않아 홍삼 농축액의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식이라 곡식이나 채소 등 식품을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먹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편의점을 즐겨 찾는 MZ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요 편의점 3사(GS25, CU, 세븐일레븐)에 멀티비타G 홍삼샷, 잼잼 등의 전용 제품을 출시했다.

'멀티비타G 홍삼샷'은 물 없이도 ▲



멀티비타G 홍삼샷. /농협

비타민 ▲미네랄 ▲홍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일상 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옥영석 농협홍삼 대표이사는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 면역력 관리와 피로 회복을 위해 홍삼을 추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홍삼의 맛과 영양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야나두' 장학금 효과·실적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완강률·지급인원 왜곡 판단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 판매업체 야나두가 자사 장학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실적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주)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강의를 끝까지 듣는 비율)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완강률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니라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였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이러한 전제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각자대표 체제 전환… 글로벌 도약 시동

오상훈 대표선임, 유종만과 투트랙 경영·글로벌, R&D 역할분담 명확 이병건·방영주 등 거물급 이사회 글로벌 임상·라이선싱 전략 강화 ATROM-C 임상 본격화 전환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2026년 시작과 함께 경영 체계를 정비하고 업계 거물급 인사들을 이사회에 영입하며 글로벌 도약의 기반을 새롭게 다진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오상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유종만 대표 이사와의 각자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향후 유종만 대표가 연구개발(R&D)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신임 오상훈 대표는 경영 전반과 글로벌 사업, 중장기 재무전략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번 인사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실제 의료 시장의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훈 신임 대표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삼성화재 미국법인 대표,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



오상훈
신임 대표



이병건
비상무이사



방영주
비상무이사

다.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사업확장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축적했으며, 미국 헬스케어 조직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의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를 실현하는 사업구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현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으로서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대표의 합류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 중심 벤처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훈 대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지속적인 전문인

력 영입,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과거적 혁신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바이오 업계와 의학계의 석학들을 이사회에 영입하며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신규 선임된 이병건 비상무이사는 녹십자와 종근당홀딩스, SCM생명과학, 지아이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현재 국제 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사장과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Flagship

Pioneering) 특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병건 이사는 앞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서 풍부한 신약 개발 경험과 글로벌 라이선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톰(ATROM)-C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전수할 예정이다.

함께 합류한 방영주 비상무이사는 항암 치료 및 임상 시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글로벌 임상을 주도해왔다. 방 이사의 영입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재생치료제의 임상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전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개편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술, 경영, 임상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전망되는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ATRO M-C’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침샘·간·자궁내막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녹십자

‘리브말리액’ 전보 적용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첫 사례

GC녹십자는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성분명: 마라리시벳)’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4일 밝혔다. 알라질증후군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국내 첫 사례다.

리브말리액은 담즙산의 장내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춘 혁신 치료제다. 알라질증후군 환자에서 담즙정체성 소양증을 개선하는 데 쳐방된다.

리브말리액 임상시험군과 외부 자연사 코호트(GALA)를 비교분석한 결과, 리브말리액 치료군에서 간이식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건 발생 위험은 비교군 대비 약 70% 감소했다.

알라질증후군은 소아 허귀질환로, 극심한 소양증, 성장 장애 등을 동반하며 만성 간질환을 유발한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간이식과 같은 고위험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서 바이오시밀러 직판 확대

바이우비즈 유럽 직접 판매 개시
유럽 내 직판 제품 4종으로 확대
제품·시장별 맞춤형 상업화 전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직접 판매 전략을 확장 적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부터 유럽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를 직접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바이우비즈는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이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다. 습성 연령유관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안과 질환 치료에 쓰인다.

이 제품은 지난 2021년 8월 유럽 의약품청에서 첫 번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



바이우비즈



삼성바이오에피스

러로 판매허기를 획득했고 그동안 유럽에서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을 통해 판매돼 왔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0월 바이오젠과 ‘바이우비즈 유럽 상업화 권리’를 이전하는 자산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판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내 직접 판매 제품은 이번 바이우비즈를

포함해 총 4종으로 확대하게 됐다. 앞서 골질환 치료제 ‘오보렌스’, ‘엑스브릭’ 등 2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유럽에서 직접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3년 희귀질환 치료제 애피스클리를 시작으로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상업화 역량을 쌓고 있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개발·임상·허가에 이어 상업화 단계로 사업 수행 범위를 지속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6년 현재까지 총 10종의 제품을 상용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처음 앤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플리’를 선보인 후 면역학, 종양학, 안과학, 혈액학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입지를 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단순 직판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제품별 및 시장별 ‘맞춤형 상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제품에서 최적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며 직접 판매를 결정하는 등 향후 해외 현지 시장 기회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제를 내재화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본부장 린다 최 부사장은 “바이우비즈의 유럽 직접 판매 개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 시장에서의 상업화 역량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현장 및 의료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환자들의 바이오시밀러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

‘리바로페노’ 선보여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리바로페노는 피타스타틴과 폐노피브리산을 하나의 제형으로 결합한 경질 캡슐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과 중성지방(TG)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고위험 성인 환자 중 피타스타틴 2mg 단일요법으로 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TG 수치가 높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치가 낮은 환자 치료에 처방 가능하다.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양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LDL-C와 TG를 함께 관리하는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춘 스타틴계 약물 치료로 LDL-C가 조절되더라도 TG가 높고 HDL-C가 낮은 경우에 쓰인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출시한 피타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고혈압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에 이어 리바로페노를 출매하며 피타스타틴 기반 ‘리바로 폐밀리’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PDRN’ 올리브영 선봬

피부장벽·열감·붓기·속건조 개선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 기획세트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트는 본품 50ml에 15ml를 추가 구성했다. 해당 제품은 전문적인 피부 관리 후 민감해진 피부를 복합 관리할 수 있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열감, 붓기, 색소침착, 자극 받은 피부장벽, 속건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리안24에서 정량추출물과 5가지 P

파스쿠찌 “매달 브랜드데이로 혜택 강화”

매월 1~3일, 프로모션 할인 제공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카페 브랜드 파스쿠찌가 브랜드데이 프로모션 ‘파스쿠찌 데이’를 진행한다. ‘파스쿠찌 데이’는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해피포인트 앱·해피오더 앱 등에서 할인 쿠폰과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행사를다.

먼저, 해피포인트 앱 내 ‘선물하기’에서는 커피와 조각케이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어링 세트’와 인기 음료 4종을 최대 2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페어링 세트는 아메리카노(2잔)와 ‘딸기 트리’ 조각 케이크, 아메리카노

(1잔)와 ‘오! 마이 캐롯’ 조각 케이크 등 2종이다. 딸기밀차쉐이크·딸기크림치즈 쉐이크·하니고구마라떼·월넛라떼샷 등 음료도 혜택가로 구매 가능하다.

해피포인트 앱에서는 매장에서 조각 케이크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R) 무료 증정 쿠폰을 제공하고, 해피오더 앱을 통한 1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이용 고객을 위해 ‘신한 마이샵’에서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제휴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SK바이오팜, 결식우려아동 위한 '행복상자' 포장

SK바이오팜이 사해를 맞아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아동을 위한 '행복상자'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구축한 사회공헌 협력체이며 이번 활동에는 SK 바이오팜 임직원 약 260명이 동참해 행복상자를 직접 포장했다. 행복상자는 위생용품, 영양간식,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SK바이오팜

현대차그룹, 독립 유공자 지원·사적지 복원활동 '눈길'

中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보존 위해 정몽구 명예회장 '민간외교' 활약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독립 유공자 지원 및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에 적극 나서면서 '민간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일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

2004년 5월 중국 상하이시 정부청사에서 한정(韓正) 상하이 시장과 면담을 갖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임시정부청사가 위치한 상하이시로 만구 지역 재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상하이시에 임시정부청사 주소지인 '306동 3~5호와 318동 전체'의 보존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하이시는 임시정부청사 인근지역이 수십년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임시정부청사부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모습.

근만 재개발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가 상하이시 측 인사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자 현대차그룹이 발벗고 나섰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직접 한국 기업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상하이시에 임시정부청사 주소지인 '306동 3~5호와 318동 전체'의 보존을 요청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첨단의 미래와 옛 황금기 중국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국제도시인 상하이시에 위치한 임시정부청사는 한국의 독립훈과 정

통성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의미가 남다른 민족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며 "임시정부청사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해 한국이 재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비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양정화(楊定華) 상하이시 부비서장 겸 도시개발담당관이 참여하면서 상하이시와 현대차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후 한정 상하이 시장과 이창동 당시 문화부 장관의 면담이 성

사됐고, 결국 상하이시가 추진하던 재개발 프로젝트가 유보되면서 임시정부청사는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현대차그룹은 독립에 헌신한 순국 선열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독립운동 사료 전시회 ▲유해봉환식 의전차량지원 및 국립현충원 셔틀버스 기증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차원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내몽고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와 ▲소외 지역 소학교를 지원하는 '꿈의 교실' 프로젝트 ▲수소 에너지 관련 역량 교육인 '수소과학 교실'(HTWO 광저우주재)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에서의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2~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6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고 올해도 기업 발표를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사진)가 기업 발표를 하는 모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명장제도'로 리더십 인재 선정

삼성, 핵심 기술분야 전문가 선발

삼성이 '삼성 명장 제도'를 통해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선정하고 있다.

삼성은 ▲설비 ▲품질 ▲인프라 ▲금형 ▲구매 ▲계측 등 핵심 기술분야 전문가들을 '2026 삼성 명장'으로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삼성 명장은 총 17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관계사별로는 삼성전자 12명, 삼성디스플레이 2명, 삼성SDI 1명, 삼성전기 1명, 삼성중공업 1명이다.

삼성은 지난 2019년부터 삼성 명장 제도를 운영했으며 명장 선정 분야와 명장 제도 도입 계열사를 확대해왔다.

초기에는 ▲제조기술 ▲금형 ▲품질 등 제조분야 위주로 명장을 선정했지만, 최근에는 ▲구매 ▲환경안전 분야 전문가도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9년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도입된 명장 제도는 2020년 삼성전기, 2021

년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2025년에는 삼성중공업까지 확산됐다.

올해는 선정 인원도 최대이지만, 명장을 배출한 관계사 또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까지 5개사로 가장 많았다.

삼성은 지금까지 86명의 명장을 선정했으며, 명장 제도 운영을 통해 핵심 기술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장 수당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삼성시니어트랙'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인사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삼성은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 육성에 힘쓰는 한편 ▲국제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등을 지속해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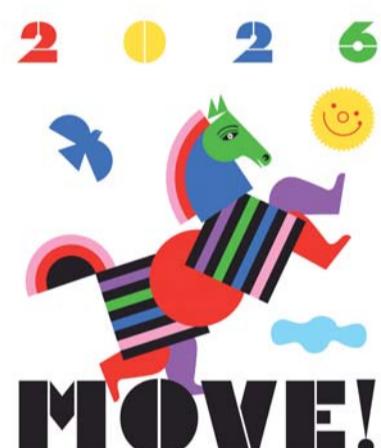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

롯데百, '붉은 말' 담은 아트콘텐츠 선봬

비주얼 테마 '2026 MOVE!' 공개

롯데백화점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담은 아트콘텐츠로 새해 포문을 열었다.

롯데백화점은 새해 첫 비주얼 테마 '2026 MOVE!'를 공개하고 전 점포를 신년 분위기로 단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비주얼 작업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마우로 부비코(Mauro Bubbico)'가 참여했다. 작가는 병오년을 상징하는 말의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특유의 기하학적 패턴과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해 냈다. 이 디자인은 지난 2일부터 백화점 외벽, 출입문,



롯데백화점이 신년 키 비주얼로 삼은 아트콘텐츠 '2026 MOVE!'.

디스플레이 등에 일제히 적용돼 방문객들에게 활기찬 새해 기운을 전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라이엇게임즈, LCK컵 개막 앞두고 소양교육 진행

라이엇게임즈가 LCK컵 개막을 앞두고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 및 코치진을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소양 교육은 2026년 LCK 및 LCK CL 운영 방안 안내로 시작됐다. LCK 사무국은 올해 시즌 변경되는 대회 방식과 주요 규정을 소개했다. LCK컵 그룹 대항전에 적용되는 코치 보이스 운영방식도 공유했다.

/라이엇게임즈



도드람, 지난 한 달간 '도드람 햄 세트' 1000개 기탁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이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12월 한 달간 전국 4개 지역에 총 1000세트의 '도드람 햄 세트'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드람양돈농협 심병칠 이사(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김천시청 및 도드람양돈서비스 관계자들이 기부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드람



우리금융미래재단, 순직 소방관 유가족 초청 오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및 현직 공상 소방관 8명을 초청해 새해맞이 오찬 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가운데)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 및 공상 소방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남부발전, 현장 중심 안전경영 나서

김준동 사장, 하동빛드림본부 방문

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하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에 나섰다.

4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김준동 사장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24시간 가동되는 하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발전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하동발전본부에 도착해 중앙제어실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설비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

다. 특히 한파 대비 설비관리 상태와 비상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 사장은 교대 근무 중인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고 밝은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현신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방문은 특히 현장 직원들이 업무와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의견 절차를 생략한 채 조용히 진행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진 브리온'으로 활동

주한진이 세계 최고 권위의 e스포츠 리그인 LCK(League of LegendsChampionsKorea)에 본격 합류하며 전 세계 미래 세대와의 접점 강화에 나선다.

한진은 e스포츠 프로 게임단 '브리온이스포츠'와 네이밍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브리온은 산하 모든 팀(LCK·LCK

CK 챔피언스리그·LCK 아카데미 시리즈)은 올해 시즌부터 '한진 브리온(HANJIN BRION)'으로 활동한다.

스폰서십을 통해 한진은 선수단 유니폼, 경기장 설치물, 구단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에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며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한다. 나아가 한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물류 마케팅 자산을 활용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각도의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 유진투자증권 <승진> ◇ 상무보 ▲자본시장실장 이주형 ▲IPO실장 오주현
- ◆ 준법감시실장 이택희 ◇ 이사대우 ▲결제업무팀장 권순태 ▲IPO2팀장 오승철 ▲여의도WM센터장 김종기

부음

- ◆ 이호남씨 별세, 박준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장례식장 4층 특2호실, 발인=6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함평 나산면 선영. 062-452-4000

신탁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여지운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다.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신탁회사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에서는 위탁자(시행사)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 신탁계약을 일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포함된 신탁계약에 대해, '위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해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등).

그런데 이러한 위탁자의 신탁 해지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 대법원

2009다81289 판결 등은 그 조건으로 "분양 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탁계약에 따른 적법하고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에 의해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가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거나, 또는 적어도 위탁자(시행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별도로 지정된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 계좌로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의 경우에만' 위탁자(시행사)의 신탁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수분양자가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분양대금이 신탁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등).

대법원은 또한 미리 합의에 의해 예정된 분양가격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뤄진

사안에서도 위탁자(시행사)의 신탁 해지권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다50353 판결).

이러한 경우까지 신탁해지권이 인정되는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다면, 대출금융기관(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해 신탁계약의 본지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탁자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도 위탁자의 신탁해지권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573242 판결). 이러한 대물변제 약정은 PF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지급 방법 등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 수탁자의 동의도 없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위탁자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궁극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고 유효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분양대금도 반드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금융권의 화두, 내부통제 강화



기자 수첩

안재선
(유통&라이프부)

새해부터 제2금융권 수장들이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와 상시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오후 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책무구조의 안정적인 도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금융권의 경우 내부통제 문제는 금융 사고와 직결된다. 대표적

으로 상호금융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해 상반기에만 15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했다. 신협이 68건, 새마을금고 39건, 농협 28건, 수협이 22건으로 집계됐다.

정보보호 유출 사고와 연결고리도 있다. 최근 신한카드에서 내부 직원의 일탈로 가맹점주 다수의 개인정보가 3년간 유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4년에는 우리카드 직원이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넘겨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관련 이슈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을 향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해 금융위원회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외부감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도 나섰다. 지난 2024년 국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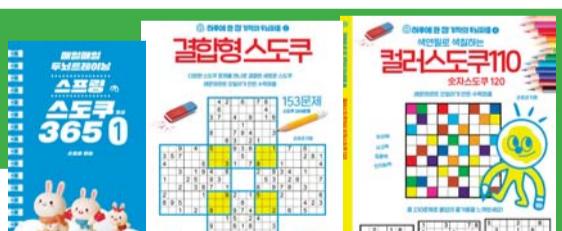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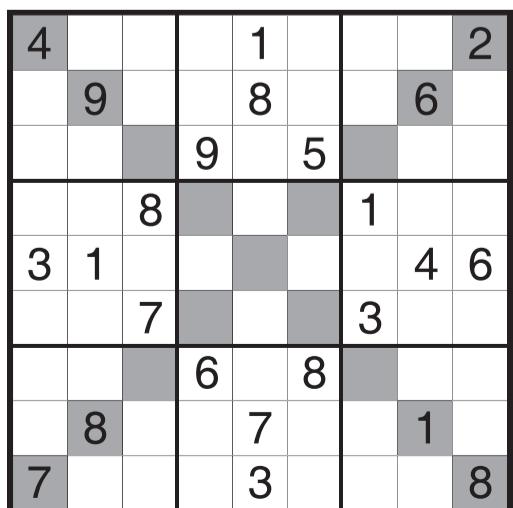
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단순 기준 강화를 넘어 쳐별에 대한 규정 역시 춤춤하게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내부통제 문제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공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두고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가이드 라인만 강화될 뿐, 내부통제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고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올해만큼은 내부통제 강화의지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wotjs4187@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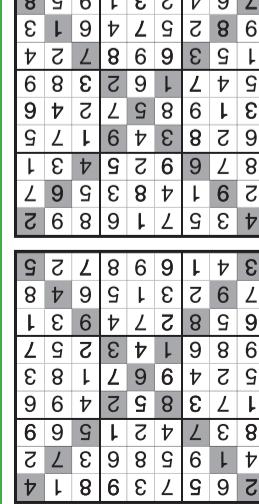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르디노의 웹드메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김상회의四季

병오년 각오



언제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는 가는 해에 대해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새로 맞이할 해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2026년을 맞는 마음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그 어느 해보다도 또 다른 환경에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었으나 인간이 AI에 종속되는 사례가 점점 확실해지며 기존 통념과 질서는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알면 보이면 길을 찾을 수 있기에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해나가야 하리라. 병오년은 윗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적토마의 기운은 확연하나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다. 물론 각자의 일주나 연주 등 사주 구성에 따라 그 방향성을 달라진다.

같은 비가 내린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해갈의 비요, 누군가에게는 흥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의 세운(世運)을 잘 살펴서 대비한다면 유비무환(?)이 되는 법이다. 사주명조에 화(火) 오행이나 목(木) 오행이 많은 사람이라면 오행의 태과가 장애로 다가올 수 있으니 설기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애에 강한 기운 그 자체로 밀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병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사주에 따라 방침을 잘 세워야 한다. 지구 환경적으로는 병오년엔 화재나 지진 같은 천연재해가 자주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가뜩이나 이상고온으로 뜨거워진 지구에 한낮의 태양과 열기가 지속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구 곳곳의 나라는 요동을 칠 것이다. 계속 열을 받는 형국이라 물은 증발하여 가뭄으로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식량난은 가중된다. 가뭄과 목마른 사태가 만연해지니 결실과 수확과는 거리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92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최첨단 캠퍼스에 해외 학위까지… 최대 규모 학습 네트워크

2026 사이버대 가이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입생과 졸업생을 배출하며, 최대 규모의 학습·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사이버대학 최다 신입생을 기록했으며(대학알리미 기준),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3591명으로 교육부 승인에 따라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장학금 지원 규모도 두드러진다. 서울사이버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학금 지급 총액 1위를 기록하며, 재학생의 학업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 전국 캠퍼스 구축…글로벌 복수학위로 교육 외연 확장

서울사이버대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대학 인기를 받은 이후,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최첨단 대학 캠퍼스를 조성했다. 서울에 위치한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약 1만6000m²)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이버대 최다 신입·졸업생 배출 7개 캠퍼스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복수학위·공동연구 등 글로벌 교류

부산·대구·인천·충청·광주·인천·분당 등 전국 7개 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학교 샌버나디노(CSUSB) 등 해외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연구와 콘텐츠 교류, 교과목 공동 개발, 초빙교수 특별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CSUSB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국내 학위와 해외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해 '온라인 복수 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학과 신설·개편…대학원 과정 확대

서울사이버대는 2026학년도 학과(전공) 신설과 개편을 통해 사회 수요와 교

육 트렌드에 대응한다. 기존 문화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예술대학으로 통합했으며, 반려동물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를 신설했다. 드론·로봇공학과, 문예창작학과, AI커머스학과, 국방AI학과 등을 확대 개편했다.

일반대학원도 운영 중이다. 기존 사회복지학과, 상담·임상심리학과에 더해 뷰티산업학과, 음악학과, AI융합기술학과를 신설해 석사·박사 과정을 포함한 총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는 오는 15일까지 총 11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전공)로 사이버대 최다 모집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 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 심리·상담대학(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

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심리학과) ▲ 사회과학대학(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안전관리학과, 통일안보북한학과) ▲ 융합경영대학(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

과, 세무회계학과, AI서비스마케팅학과) ▲ 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드론·로봇공학과(개편), 응용수학·통계학과(신설)) ▲ 디자인대학(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문예창작학과(개편), 뷰티디자인학과, 스포츠지도학과(신설)) ▲ 예술대학(통합)(피아노과, 성악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회화과) ▲ 미래융합인재대학(AI커머스학과(개편), 모델연기학과, 실용영어학과, 국방AI학과(개편))

▲ AI융합대학(AI크리에이터학과, AI부동산비데이터학과, AI스마트팜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 웰니스건강대학(통합건강관리학과, 요가·명상학과) ▲ 마이크로디그리대학(자유전공)이다.

신입학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apply.iscu.ac.kr)에 접속해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박형준 부산시장 美 순방… 북극권 협력 확대

부산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 북극항로·항공물류 등 성장동력 점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북극항로와 미래 신산업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북극항로 기착 예정 도시 방문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 참관을 통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4·6일 일정으로 미국 알래스카주와 네바다주를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북극항로, 항공물류, 인공지능(AI) 등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국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

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시장은 먼저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를 찾는다. 앵커리지는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화물 허브 도시다.

부산시는 앵커리지 방문을 통해 항공물류 네트워크 확대와 북극항로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곳에서 가덕도신공항이 향후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박 시장은 알래스카 북서부에 위치한 놈(Nome)시를 방문한다. 놈은 인구 3000명 규모의 소도시지만,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쇄빙선 아라온호도 북극해 진입을 위해 이곳을 기항지로 활용한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극 개발의 전초기지로 놈 심수항 개발을 추진 중인 만큼, 부산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물류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해 CES 2026에 참석한다. CES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직결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쪽방주민 안식처 '동행목욕탕' 9만명 이용

서울시, 동행목욕탕 3년간 운영
더위·추위 피하는 사랑방 역할 톡톡

씻을 곳이 부족한 쪽방 주민들이 편안하게 씻고,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동행목욕탕이 운영 시작 3년여 만에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이용률이 3년간 10% 이상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소통을 돋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3년간 운영된 동행목욕탕의 이용율(이용권 배부수/이용자 수)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68.3%, 2025년 69.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년간 누적 이용 인원은 9만835명이다.

'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주)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약자동행 대표사업이다. 쪽방주민들에게는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만큼 정산을 받는다.

한미약품(주)은 연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후원한다.

초기 4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8곳으로 늘었고,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월)에는 월 4회로 이용권 지급 횟수를 늘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행 3년 동안 주민 만족도는 물론 향후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2023년 96.1%, 2025년 97.3%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광주·전남 대통합론… 40년 경계 허무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 앞둬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40년 경계가 허물어질 지 관심이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왔던 시·도간 통합 논의 과정을 살펴봤다.

2일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한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 1일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광주동구에 위치한 전남도청의 이전이 본격 검토됐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만큼 도청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05년 말 도청이 무안 남악에 동지를 틀며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통합론은 2020년부터 다시 시·도를 달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략적 협력 등이 재논의의 계기가 됐다.

2021년 김영록 도지사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에 뜻을 같이하고 용역 단계까지의 절차를 밟았지만, 통합을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난 데다 당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계획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동력을 잃은 통합론은 결국 중단됐다. 통합론은 새 정부들에 다시 한번 급부상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5·3 특제제가 국정의 큰 틀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도는 우선 느슨한 통합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출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시점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약속 등 강력한 유인책이 촉매제로 작용, 시·도간 통합론은 재점화됐다.

시·도 행정통합론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민 사이 새해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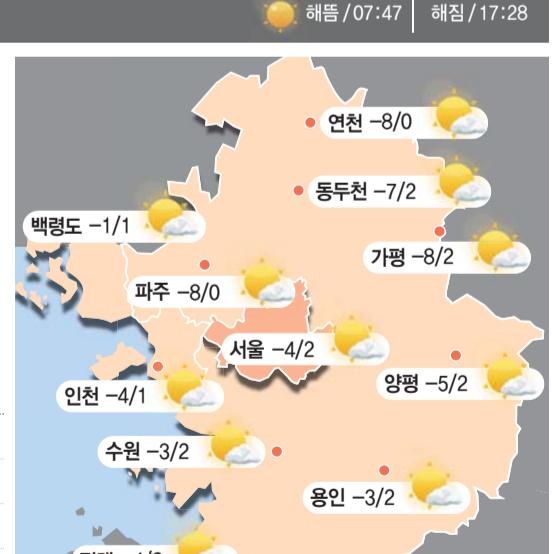
1월
5일 (月)

음력 : 11월 17일

수도권 날씨

-4 ~ 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베네수엘라 대법원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 통령 권한대행 수행 명령”

/사진 뉴시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美 마두로 체포 논의…국 제법 논란 해명 주목

▲ 앤서니 앤더슨이 호주 총리, 베네수엘라 사태 악화 막는 ‘외교 노력’ 강조

/사진 뉴시스

▲ 에드 데이비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 “美 베네수 공격은 푸틴·시진핑의 공격 허용하게 될 것”

▲ 주일 중국대사관 “일본 치안 좋지 않아”…여행 자제 재차 권고

/사진 뉴시스

▲ 인도, 마오주의 공산 반군과 교전…낙살라이트 조직원 14명 사살



유통업계 총수
3高 현상에
생존전략 제시
L1



“관계 무너진 외로움의 사회… 생애 전 주기 돌봄 설계해야”



넥스트케어 전 용 호 대표

돌봄의 대상은 더 이상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 외로움과 고립, 관계 붕괴가 확산하면서 청년과 중장년까지 돌봄의 경계에서 있는 사회가 됐다.

전용호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NEXT CARE)’ 대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를 고령화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 것 역시, 사람 간 연결이 약화된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런 변화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돌봄의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을 특정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계 붕괴→돌봄의 범위 확대

전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를 ‘외로움의 사회’로 진단했다. 도시화와 개인화가 심화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는 약화됐고, 실직이나 질병, 가족관계 단절 이후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돌봄 위기가 노인 인구 증가보다 앞서 관계의 붕괴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과거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된 돌봄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청년과 중장년 역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라며 “외로움이 관리되지 않으면 우울로, 우울이 방치되면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고, 일부는 고독사나 자살 문제로까지 확장된다”고 말했다.

◆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용호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NEXT CARE)’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넥스트케어는 학문과 현장을 잇는 관점에서 돌봄 이슈를 다시 바라보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됐다. 사회복지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돌봄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창립식을 열고 돌봄에 대한 기본 인식과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내놓았다. 아동·청년·장애인·중장년·노인·AI 등 생애주기와 분야별로 돌봄 현안을 나눠 살피며, 기존 제도의 한계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지점을 정리했다.

넥스트케어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대상 중 하나가 ‘돌봄통합지원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전용호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NEXT CARE)’ 대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가 지난해 12월 4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도시화·개인화 심화로 관계 붕괴돼 노인 외 청년·중장년 돌봄 사각지대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 출범

지자체·공공기관 등 돌봄 컨설팅 추진 의료·보건·복지 자문 수요 늘어날 것

돌봄인력, 제공기관 부족 등 문제점 지역기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강조 시설중심 아닌 지역기반 돌봄 필요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곧바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기준 구조에서 벗어나, 시설 입소를 늦추고 지역사회 내 삶을 유지하자는 정책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 교수는 해당 법은 생애주기 전반의 돌봄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대상을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통합 돌봄의 핵심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 독립성 유지…‘돌봄지자체’ 자문

넥스트케어의 재정은 교수와 연구자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후원에 의존 할 경우 활동의 독립성과 문제 제기가 제약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정적 자립을 원칙으로 삼았다.

향후에는 회원 확대와 연구용역·컨설팅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

체와 요양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모델 설계, 공무원 교육,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초자체가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통합돌봄팀이나 통합돌봄국 등 행정조직도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돋는 연구용역과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성동구 통합돌봄 정책 자문과 부위 원장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성동구는 노인·장애인을 넘어 고립·은둔까지 포괄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 기관은 닿지 않는 돌봄 현장

전 교수는 학계와 현장을 오가는 활동과 함께,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돌봄 정책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심각하게 본 문제는 돌봄 인력과 제공기관의 부족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어도 제공기관 자체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그는 “돌봄은 사람이 제공하는 대인 서비스기 때문에 인력이 없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민간 기관이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진입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확대 시장 실패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으로 확정 됐지만, 전국 299개 지자체를 고려하면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판단이다. 전국 시행을 고려하면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 전환을

전 교수는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으로 인력 구조를 꼽는다.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더라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으면 제도는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1세, 평균 급여는 월 87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시간제·불안정 노동에 놓여 있다”라며 “도시는 제공기관 과잉, 농어촌은 과소공급이라는 구조적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적절한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중심 돌봄은 비용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지역 기반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외로움의 시대…“돌봄 체계 재설계”

전 교수는 “앞으로 5년, 10년을 돌봄체계를 재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하는 사회에서 청년과 중장년, 정신건강 돌봄까지 포괄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영국의 ‘링크워커(Link Worker)’ 사례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전 교수는 “링크워커는 병원에 보내기 전에, 사람을 지역사회 안의 사람과 활동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며 “약이나 입원보다 관계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원 치료 이전에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측방이 지역사회 치원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정신건강 돌봄 역시 위험 관리와 경제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로움과 고립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병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에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신건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돌봄 문제 전반을 단일한 정책 해법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에서 넥스트케어 역시 특정 정책을 주장하기보다,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적 논의를 확장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넥스트케어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사회의 방향을 묻는 공적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 종합선수권 우승…3회 연속 올림픽 출전 달성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종전해도 러시아는 개인중립선수로만 올림픽 출전”

▲한국축구대표팀 이민성호,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목표는 ‘최소 4강’

▲‘황희찬 1골1도움’ 울버햄튼, EPL 개막 20경기 만에 첫 승

▲타격왕 이대호, 대만 야구 ‘중신’ 스프링캠프에 객원 ‘타격 인스트럭터’로 합류

▲‘1980년생’ 비너스 윌리엄스, 역대 최고령 호주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출전

새해엔, 들려주세요
**더 힘차게
달리자는 말**



힘이 되는 말,
희망과 응원의 말로
2026년이 가득 채워지도록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